



“글로벌대학30’ 잡아라” 지역 대학들 ‘사활’

광주 8곳·전남 6곳 등 총 14개 대학 신청서 제출
교육부, 이달 중 15곳 예비 지정...10월 10곳 선정
배점 높은 ‘내부 혁신’ 대학 통폐합·학점 교류 초점

교육부가 지역 대학에 5년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 지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은 학생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 지정 대학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발표된다. 각 대학은 글로벌대

학30 기획서에 담긴 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했으며, 교육부가 예비 지정 대학 발표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예비 지정 대학 탈락 시에도 기획서 공개 불가 방침에 서명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14개 대학이 글로벌대학30에 뛰어 들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남부대, 송원대, 광주여대, 광주교대 등 8곳, 전남에서는 동신대, 목포

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초당대, 순천제일대 등 6곳이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50분량의 신청서를 토대로 ▲내부혁신성(60점) ▲성과 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순까지 본 지정의 15배수인 15곳을 예비 지정하고 오는 10월 중 최종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2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 평가에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된 경우 10점을 우선 배점기로 해 RISE사업에 탈락한 광주는 출발선 상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광주는 ‘내부 혁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글로벌대학30’ 예

비 지정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대학들은 혁신성을 평가할 열쇠로 대학 간 구조조정 등 통폐합과 학점 교류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10여년 전부터 논의만 됐던 대학 간 통폐합이 ‘글로벌대학’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대는 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서 제출에 앞서 지난달 24일 조선간호대학과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남에는 조선대·광주대·광주여대가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관련 정보 교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학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목포대·순천대·전남도립대도 통폐합을 전제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RISE 사업에 탈락한 지역 대학은 글로벌대학30 평가에서 뒤쳐진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10점 선 배점이 예비대학 선정에 당락

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대학의 강도 높은 혁신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전국 166개 대학 중 108개(65.1%)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 건수는 부산·충남 각 14건, 경북 13건, 광주 8건, 대전·경남 각 7건, 전남·전북·충북 각 6건, 강원 5건, 대구 4건, 세종 2건, 울산·제주 각 1건 등 총 94건(공동 접수 포함)이다. /김다이지

광주 기업 부채 ‘경고등’...코로나 이후 광역시 중 최고

2019년말 16조8천억→2022년 30조9천억 급증
중소 부채·한계기업 증가...상환 능력은 약화

광주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 부채가 전국 광역시 중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 부채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12% 이상 높은 데다, 부채 누적도 심화하면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재훈 경제조사팀 조사역의 조사연구보고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광주 기업 부채는 2019년말 16조8천억원 대비 2022년말 기준 30조9천억원으로 84.1% 증가했다. 광주 기업 부채 증가율은 2019년 10%대로 낮아졌다가 2021년 25.6%까지 오른 이후 최근까지 20% 안팎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 기업 부채의 특징은 ▲중소기업 빠른 증가 ▲높은 건설·부동산업 비중

▲부동산업 중심 높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부채 상환능력 약화 ▲취약기업·한계기업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광주 중소기업 부채 증가율은 2018-2022년 연평균 25.5%로 대기업 13.4%보다 12.1%p 높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차입금 의존도, 낮은 수익성 등으로 향후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대될 경우 상환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기업 부채 업종별로는 부동산업(46.0%)과 건설업(20.2%) 비중이 높았다. 특히 부동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319.3%로 과다 부채기업 기준인 200%를 훨씬 상회했다. 부동산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PF대출 위험 등으로 비우호적인 차입 여건이 형성되고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등 향후 부실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코로나19 이전인 20

19년말 38.6%에서 2022년말에는 43.2%까지 상승했다. 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한계기업도 2019년 말 11.9%에서 2022년말 19.4%로 늘었다. 이처럼 광주 기업들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면서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개별기업은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 상환 능력과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은 일부 취약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 신용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효율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지원협의회, 중소기업 CEO감담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업황,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재만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재난 대비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날 훈련에는 광주시와 동구, 23개 기관·단체, 시민 등 800여명이 참여하고 장비 60여대가 동원됐다. /김애리 기자

김지사-‘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첫 면담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당위성 설명
무안군수·군의회 의장단 만남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 전후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요 간부들이 12일 도청에서 처음으로 면담을 갖고 포일 대로 포인 공항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의 첫 단추를 쳤다. 이날 면담을 통해 김 지사의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구상에 대한 무안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면담에는 범대위 측에서 박문재 상임 공동위원장, 박일상 총괄본부장, 정총무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정길수(무안1)·나광국(무안2) 전남도의원, 이호성 무안군의원이 함께 했다. 전남도에서는 문금주 행정부지사, 장현범 기획조정실장,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배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와 면담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발걸음을 해 준 범대위 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 소음 피해·지역 개발 저해·공항 운영 제한 등 우려에 대한 오해, 전남도의 지원 사업 발굴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범대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범대위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의회 의장단, 무안군 사회단체장 등을 차례로 만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Today
독 끊긴 인도...시민안전 '위협' 6면
다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 시작 11면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32주년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전라남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가입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복귀를 돕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장내역
(15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2 사회재난 사망 3 익사사고 사망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5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8 강도 상해사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강도 상해후유장해 10 농기계 상해사망 11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4 개물림 응급실 진료비 15 급성 감염병 위로금 <p style="font-size: small;">* 사·군별 보장항목 및 한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p>
--	--

전라남도 JeollaNamdo